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겨울에도 익혀 드세요”

최근 5년간 겨울철 식중독 건수 증가
손 세척·끓여먹기 등 위생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통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해마다 평균 46건(1306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1월 5건(131명), 12월 10건(205명), 1월 9건(158명), 2월 5건(117명)으로 11월부터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1월부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면역력과 개인위생 수준이 낮은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의 심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으로도 쉽게 전파된다. 최근 5년간 겨울철 식중독 발생통계를 보면 어패류와 오염된 지하수에 의한 발병이 가장 많았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오랫동안 가능하다.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시킬 수 있다.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24~48시간 이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이 발생한다.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 1g에는 약 1억 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침이나 오염된 손으로 만진 손잡이 등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전파력이 무척 강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식품 조리 참여할 경우 음식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간편한 예방방법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다.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해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구어 효과가 있다. 굴 등 어패류는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도 강하다.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채소나 과일은 깨끗한 물로 씻은 뒤 먹어야 하고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소독제를 40배 희석해 소독하는 것이 좋다. 소독제 25ml에 물 975ml를 섞으면 된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11월 12일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광동제약 임직원 및 가족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자원봉사자들.

광동제약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훈훈

임직원 등 60여명 백사마을 찾아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11월 12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대표 허기복)과 노원구 중계본동의 백사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광동제약 임직원과 가족 60여 명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백사마을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과 소외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3000장을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광동제약은 2005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자매결연한 이후 지속적인 후원금 지원을 하고 해마다 겨울을 앞두고는 어려운 가정에 직접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신미애 사무국장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최근 비싸진 연탄 값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는 겨울철 난방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힘든 기색 없이 환한 미소로 연

탄 나르기에 함께해 주신 광동제약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광동제약 임직원과 가족들은 지난 10월에도 (사)희망의 러브하우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후주택을 보수해주는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광동제약은 고3 학생들에게 직접 비타 500을 전하며 응원하는 ‘고3 수험생 응원 캠페인’을 15번째 지속해 오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종건 기자

한미메디케어 ‘에어디펜스’ AI 바이러스 차단막 효과

최근 AI가 빠른 속도로 확산돼 양계업계의 걱정이 많다. AI는 조류에 서식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이다. 전파력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된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조류와의 접촉을 통해 사람에게도 전염된 사례가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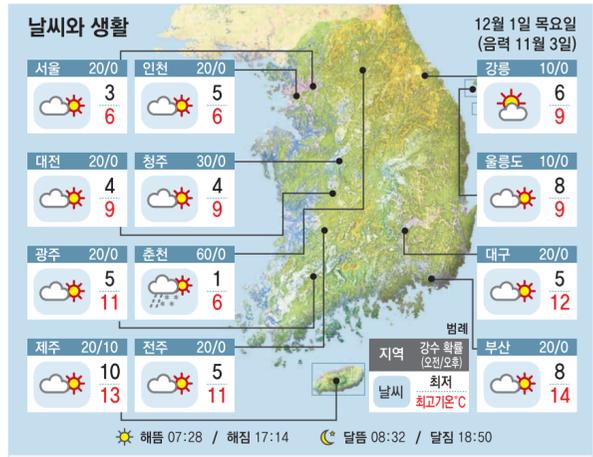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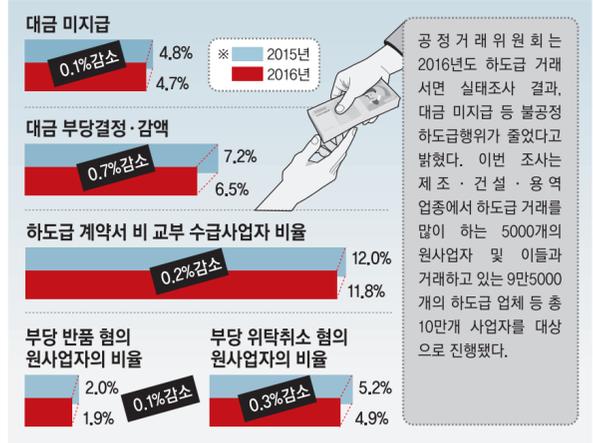
이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주는 제품이 나왔다. 한미메디케어(대표이사 임종훈)에서 출시한 ‘에어디펜스’다. 일본 기술력으로 제작된 휴대용 바이러스 차단막이다. 옷이나 가방 등에 부착하는 제품이다. 소독과 살균력이 강한 고체 이산화염소(CIO2)를 안정화시킨 제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 바이러스와 부패균, 곰팡이 등 제거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에어디펜스는 인플루엔자(H1N1) 및 백시니아 바이러스 항균실험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살모넬라균, 녹농균, 폐렴막대균에서는 99.9%,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서는 97.4%의 항균력을 나타냈다는 자료도 있다. 이산화염소가 신화작용 때 황화수소, 메르캅탄 혼합물 등의 악취를 분해해 탈취작용이 가능하며, 한번 부착하면 최대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한미메디케어는 “에어디펜스가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및 세균제거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AI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에어디펜스는 휴대가 간편해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했다.

김종건 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제

2016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산 날씨	바다 날씨	미세 먼지
북한산 3/6	인천송도 5/6	서울 49 보통
설악산 5/9	제주도 4/7	부산 41 보통
오대산 2/6	경포대 5/10	대구 41 보통
계룡산 1/9	속초 6/9	인천 46 보통
속리산 3/8	대전 5/9	광주 63 보통
소백산 4/7	안현도 꽃지 6/8	대전 47 보통
팔공산 5/11	변산반도 5/10	울산 49 보통
지리산 3/10	거문도 8/13	경기 53 보통
덕유산 3/9	철포 7/11	강원 51 보통
내장산 4/10	해운대 8/14	충북 60 보통
한라산 4/7	제주도 11/13	경남 53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2일(금) 서울경기 -3/8 명동 3/12 충청 -3/7 호남 0/10 영남 3/13 제주 7/12

3일(토) 서울경기 1/10 명동 3/12 충청 0/10 호남 1/13 영남 4/14 제주 8/14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www.sportsdonga.com

발행인 송영연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인 이성춘 편집부 02 2020 1032
편집국장 연재호 스포츠1부 02 2020 1041
인쇄 동아일보사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힘이 약하고, 중간에 시들어, 잘 안된다??!

시도 때도 없이, 강한남자 뉴맨!!

동서고급. 남자의 힘!

누적고객 120만! 20여개국 수출!
15일 사용후 효과 없을시 100% 반품·환불!

www.newm.kr